

## 임플란트 서포티드 오버덴처(Implant Supported Overdenture)의 설계전략과 5~7년의 장기간 안정적인 증례보고

이철규이대경치과

이대경\*, 이철규

임플란트 서포티드 오버덴처(Implant Supported Overdenture)의 설계전략은 무치악환자의 저작패턴과 구강환경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저작패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치악환자의 저작패턴을 조사해 보면 의치의 접촉시간이 길다. (논문1) 저작시에 의치의 접촉시간이 긴 이유는 좌우로 마찰하는 형태로 저작을 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틀니를 장착한 상태에서 좌우로 마찰하면 틀니는 좌우로 흔들리게 된다. 이것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제작한 총의치나 오버덴처는 실패하기 쉽다. 따라서 구치부에서 좌우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둘째, 임플란트 서포티드 오버덴처(Implant Supported Overdenture)의 교합력은 구치부에서 자연치아의 1/2 정도이다. (논문2) 그러므로 이 정도의 교합력을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제작된 어태치먼트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구치부에서 임플란트의 지지를 받는 오버덴처를 제작할 수 있고 잇몸이 압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다. 주기적인 이장재를 적용(Relining)할 필요성도 현저하게 감소된다.

셋째, 의치환자가 저작할 때 상하악 틀니의 주된 접촉점은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이다. (논문3) 따라서 이 세 가지 논문의 결과에 근거하여 오버덴처를 설계할 때 제1대구치의 위치에 임플란트를 위치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이론에 따라 설계 및 제작을 한 오버덴처의 장단기 안정적인 임상증례를 보고한다.